

고창군, '람사르습지도시' 도전한다

연안·내륙습지 모두 보유 생명의 도시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국제인증 신청
내년 상반기 상임위원회서 결정



고창군이 지난 15일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람사르습지도시 국제인증'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고창 갯벌 쉼니아. <고창군 제공>

고창군이 '람사르습지도시'에 도전한다. 17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5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를 통해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람사르습지도시 국제인증 신청서를 제출했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은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도시나 마을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고창군은 연안습지(고창갯벌, 2010년 2월 지정)와 내륙습지(운곡습지, 2011년 4월 지정)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생명의 도시다. 특히 조례를 제정해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2014~2017년), '2차 고창갯벌 생태계 복원사업'(2017~2020)을 진행했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여부는 람사르협약 사무국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제59차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인증이 확정되면 내년에 열리는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인증서를 받게 된다. 인증시 '람사르' 상징(브랜드)을 6년간 지역 농수산물이나 생산물 판촉, 생태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습지보전 이용시설과 생태관광 기반시설 확충 등 국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명수 고창군 생태환경과장은 "고창군이 세계 제치고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며 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은 생태관광 활성화와 일자 /고창=김형주 기자 khj@kwangju.co.kr

순창군 로컬푸드
온라인 쇼핑몰 개설
지역 농특산물 30여개 제품 판매



순창군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로컬푸드 온라인 쇼핑몰(사진)을 개설했다. 순창군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스마트스토어에 '순창 로컬푸드 쇼핑몰'을 개설하고 로컬푸드 직판장에서 판매하는 30여개 제품을 등록, 판매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오프라인 판매량이 위축됨에 따라 극복방안으로 전국 단위 스마트스토어 플랫폼을 활용한 오프라인 유통망 확대에 나선 것이다. 순창군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로컬푸드 납품을 담당하는 개별 농가 및 단체의 농특산물 판매 홈페이지(배너)를 연계하는 등 온라인망 확대에 주력한다. 순창군은 쇼핑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품질과 포장 등이 우수한 개별 농가와 단체들을 대상으로 상품가격 인하를 유도해 다른 쇼핑몰과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순창군은 이번 스마트스토어 개설로 지역 로컬푸드 입점 농가 및 단체, 행정,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를 통한 참여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농·특산물품의 공신력 강화,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남원시, 농업 연계 미꾸리 양식 부가가치 높인다

물고기·식물 병행 수확 '아쿠아포닉스' 기술 연구 추진



남원시가 미꾸리 양식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술연구를 추진한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가 신소득 작물 발굴 실증연구 사업으로 무환수 미꾸리 아쿠아포닉스 기술연구를 추진, 남원 미꾸리 양식의 부가가치를 높인다. 남원시는 그동안 미꾸리 양식기술 연구센터에서 진행한 무환수 미꾸리 양식기술 연구와 병행, 아쿠아포닉스 기술연구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쿠아포닉스(Aquaponics) 기술은 물고기 양식(Aquaculture)과 수경 재배(Hydroponics)의 합성어로, 물고기와 식물을 함께 길러 수확하는 친환경 농어업 방식을 말한다. 물고기 배설물과 사료 잔여물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돼 식물의 영양분(질소)이 되고, 식물이 질소를 흡수하고 남은 깨끗한 물은 수조로 다시 되돌려 물을 교체하는 번거로움과 교체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배설물을 식물의 비료로 활용하고,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고효율 친환경 생산을 구현할 수 있다. 이 기술은 그동안 뱀장어, 메기, 향어, 동자개,

틸라피아 등의 양식어종에 활용됐다. 작물에는 상추, 허브, 토마토, 블루베리, 새싹인삼 등에 적용됐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그동안 자체 연구해 발전시킨 미꾸리 무환수 양식기술과 아쿠아포닉스를 연계한 신기술을 연구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익산시, 학교 11곳에 명상 숲·공원 조성

도심 녹지공간 늘리고 자연친화적 학습공간 제공



익산시가 학교공원화 사업으로 조성한 이리북초등학교 명상숲. <익산시 제공>

익산시는 학교 부지를 활용해 명상 숲과 공원을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심 내 녹지공간을 확충해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자연친화적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사업 대상지는 이리중앙초, 이리초, 이리중, 이리남중, 송학초, 오산남초, 함열여중, 왕복초, 여산초, 용안초, 성북초 등 11개 학교다. 이 사업은 총 5억4900만원이 투입돼 오는 6월까지 실시한다. 익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학교 부지에 수목을 식재하고 산책로를 조성해 녹색쉼터를 마련한다. 학교에서는 수목과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며 녹지대가 우선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학교에는 친자연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도심에는 녹지공간을 크게 늘리는 상호협력 사업이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새만금 육상태양광발전 운영자 군산시, 한국서부발전 선정

군산시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발전사로 한국서부발전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서부발전은 태양광발전사업에 충분한 사전지식과 전문적으로 축적된 사업역량을 집중적으로 활용해 자문과 전력 판매단가 협의, EPC(설계·조달·시공) 공모 지원 등 모든 업무를 군산시와 함께 수행한다. 군산시와 서부발전은 곧바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뒤 공모를 통해 EPC사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제안서 심사는 ▲지역주도형 사업의 이해도 ▲시민참여율 및 시민소득 등 시민참여 실행 계획 ▲지역 시장경제 및 기저지 활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행 계획 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KOREAN Fire & Marine Insurance, SGI서울보증, AXA 다이렉트, AIG, NH농협손해보험